국악의 성지

■ 코스 지도

동편제가 태동한 곳이자 아름다운 맥을 이어가는 터전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자원명		
	지명 및 위치	스토리텔링 소재	비고
1	구간 소개	국악의 성지 전체 소개	
2	국악선인묘역	국악선인묘역의 인물들	
3	독공실	득음의 장소, 독공실	
4	민속국악실	우리 민요와 전통 국악기	
5	판소리기념실_1	판소리의 역사와 명창	
6	판소리기념실_2	판소리 다섯마당	
7	국악실	전통 무용복과 강도근 유품	
8	국악체험실	국악체험과 국악기 만들기	
9	국악공연장	국악 상설공연 감상	
10	송흥록 생가	가왕 송흥록의 자취	
11	박초월 초가	남원이 낳은 소리꾼	

1. 구간 소개

이곳 경치 참 좋지요? 지리산 바래봉 바로 아래 자리한 비전마을...
이곳에 바로 저희가 둘러 볼 국악의 성지가 있습니다. 저로서는 정말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네요.
제 소개가 좀 늦었습니다. 저는 국악의 성지를 여러분과 함께 둘러보게 될 송홍록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 어디서 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곳 비전마을 출신의 소리꾼이랍니다.
뭐... 저는 그냥 소리가 좋아 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제가 동편제를 집대성 했다, 우리나라 최고의 소리꾼이었다, 판소리의 전성기를 이끌어냈다 등 칭찬들을 많이 하시더군요.
저한텐 대단히 영광스러운 찬사들이지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께 국악의 성지 이곳저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관람에 앞서 우선 국악의 성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죠.
이곳은 국악 선인들의 혼을 이어받아 우리 소리의 맥을 잇기 위해 만들어진 곳 입니다.
남원이 판소리의 고장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남원 시내가 아니라 이런 산촌에 자리를 잡았는지 궁금해 하시죠?
그건 이곳이 동편제 판소리의 발상지면서 판소리 다섯 마당 중 춘향가와 흥부가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또 신라시대의 인물인 '악성 옥보고' 선생이 거문고 가락을 연구하며 후학을 양성한 '운상원' 역시 이 지역에 자리했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국악의 성지를 운봉읍에 조성한 것은 예로부터 우리 국악의 씨앗이 움터 왔던 곳이자, 많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소리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남원 시립 국악단'이 관람객을 위한 상설공연, 국악체험 등을 선보이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리'와 '판소리의 뿌리'를 찾아 이곳을 방문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가득한 국악의 성지,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2. 국악선인묘역

본격적으로 길을 나서기 전에 국악계의 어르신들이 잠들어 계신 '국악선인묘역'에 먼저 들러 보겠습니다. 동그란 원형 무대처럼 만든 '국악 한마당'을 지나면 높게 이어진 계단이 나오고요, '운상문'을 통과하면 국악인들을 추모하는 사당 악성사가 보이지요?
전통 국악기를 형상화한 납골묘가 있고, 그 위로 다섯 개의 묘가 있는데, 이 묘들은 거문고의 명인 '악성 옥보고 선생'을 시작으로 동편제의 창시자이자 '가왕(歌王)'이라고 불리우는 저 송흥록과 저의 친동생인 송광록의 묘랍니다. 그 옆에 제 동생의 아들 송우룡과 그의 아들 송만갑의 묘까지 쭈욱 있는데요.
어허... 그러고 보니 한분의 명창이 보이질 않으시지요?
운봉이 낳은 또 다른 명창 박초월의 묘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십시오. 그 분의 묘소는 국악의 성지 안쪽, 독공실 옆에 있으니 말이죠.
잠시 후에 우리도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형 납골묘의 앞부분은 판소리할 때 장단을 넣는 북을 형상화한 건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곳에 우리나라 국악인들을 모시게 될 거라고 합니다.

'악성사'에서는 국악 명인들의 위패를 모시고 해마다 '국악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오면서 지나왔던 국악공연장 '국악 한마당'을 보니 예전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의 전성기였던 조선후기에는 판소리의 인기가 대단했지요.
저는 이미 스물 살 무렵부터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명창' 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전국팔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낮에는 물론이요, 밤늦게까지 공연을 했었답니다.
그 무렵에 이름을 날리던 명창 중에 저를 비롯하여 권삼득, 염계달, 모흥갑, 고수관, 신만엽, 김제철, 황해천 여덟 명을 뽑아서 '8명창'이라 불렸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아이돌'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의 제 인기도 그에 못지않았었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그럼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시절에 공연에서 부른 노래 한곡에 비단 천 필이란 출연료를 받았으니 이정도면 제 인기,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3. 독공실

소리꾼들이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소리꾼들이 깊은 계곡 폭포 아래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내는 장면들이 단골로 나오지요? 사실 저도 그렇게 참 많이 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맞습니다. 득음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시끄러운 폭포수의 그 웅장한 소리를 뚫을 수 있는 그 득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함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목이 탁 트이면서 폭포소리는 안 들리고 나의 소리만이 들려올 때...! 그 때의 그 기분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지금도 남원 육모정 일대에는 득음을 위해 혹독한 수련을 했던 소리꾼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조선의 명창 여덟 명 중에 한명으로 알려진 권삼득 명창의 일화는 정말 대단합니다.

권삼득 명창은 안동 권씨 양반가의 자제였지만 글공부를 싫어하고 소리를 좋아해 가문에서 쫓겨난 인물이랍니다. 그는 소리 공부를 위해 남원 육모정 아래 계곡에서 소리 한 대목을 100번 부르면 콩 한 알을 던져 넣기를 반복했는데 마침내 그가 득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그가 던진 콩을 헤아려보니 몇 말이나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소리꾼 사이에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저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득음의 경지는 멀고도 처절한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이 곳 국악의 성지에도 '득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바로 '독공실'이라는 곳이죠.
독공장이라고도 하는데, '독공장'이라고 하니까 '항아리 공장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홀로 소리를 연마하는 장소'라는 뜻이랍니다.

독공실은 산허리에 입구를 두고 방은 땅 속에 있어서 마치 동굴 속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관람객도 구경해 볼 수 있지요.
참 세상 좋아졌죠. 예전엔 저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폭포수 밑에서 하루에 한 10시간 이상씩 쫙 소리를 뽑아줘야.....
하하, 제가 너무 고리타분한 소리를 하고 있나요?

4. 민속국악실

독공실에서 소리 좀 내보셨습니까? 어떻게 목소리가 좀 트인 것 같으세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하긴.. 소리는 그렇게 쉽게 트이는 것이 아니지요...
자, 이제 국악의 성지 중심에 있는 저 멋진 건물 안으로 들어 가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전시와 체험을 함께 해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국악에 관련된 것들을 전시하고 공연도 열고 게다가 체험할 수 있는 시설까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 소리'에 관해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지요.

먼저 들어가 볼 곳은 민속 국악실인데요, 이곳은 우리 국악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불렀던 민요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상황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민요를 들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민속 국악실입니다. 이곳에서는 민요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린 나무, 종, 물 항아리 등 원시적인 악기들을 직접 다뤄볼 수도 있어 많은 분들이 흥겨워하시는데요, 여러분도 한 번 두드려 보세요. 이외에도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 등 제대로 된 국악기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기악에 대한 설명과 기악의 종류인 정악과 산조의 차이를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정악과 산조의 차이'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정악'이 궁궐이나 사대부 등 지식인층에서 누리던 조용하고 느린 연주곡이라고 한다면 '산조'는 느린 장단에서 시작해 점차 장단이 빨라지며 흥을 끌어내는 자유로운 연주곡입니다.
서양 음악에 비유하자면 정악은 클래식, 산조는 재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겨운 서민 음악의 대표주자 농악에 관한 설명과 농악에 사용되는 꽹과리, 징, 북, 장구도 직접 쳐볼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채를 쥐어보세요! 어서요!!

5. 판소리 기념실_1

장구, 징, 북 등을 흥겹게 연주해 보셨습니까?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 엉망진창이었다고요?
그 안에서 흥겨움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저를 비롯한 '소리꾼'들의 정보가 가득한 곳으로 가보죠. 판소리 기념실입니다.
이곳은 판소리가 무엇이고, 그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입구에서부터 벌써 판소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군요.
판소리는 놀이판에서 소리꾼이 노래와 사설, 몸짓, 발짓 그리고 고수의 신명나는 북장단이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종합예술이랍니다.
판소리의 구성요소, 기원, 열두 마당에 대한 정리, 판소리의 역사와 시대별 명창소개까지 잘 정리되어 있지요.

특히 동편제와 서편제의 차이도 적혀 있는데, 이 차이를 아시나요?
흔희들 '서편제는 전라도 판소리이고, 동편제는 경상도 판소리다'라고 잘 못 알고 계시는데요, '동편제'와 '서편제' 모두 전라도에서 불리던 판소리의 유파입니다.
판소리는 예부터 스승에 따라서 가사의 내용이나 곡의 흐름이 다르고, 같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제자라 할지라도 조금씩 고쳐 나가기 때문에 명창마다 그 내용이 다르지요.
이것을 '유파'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무슨 '제'라고도 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두 유파가 섬진강의 동쪽 지방에서 전해오는 '동편제'와 섬진강의 서쪽 지방에서 전해 왔던 '서편제'입니다.
이론적인 설명 말고 소리로 들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동편제는 감정을 절제하는 창법을 구사하는 소리지만 서편제는 장식이 많은 기교적인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보가, 수궁가, 적벽가 등이 동편제고, 춘향가, 심청가 등이 서편제 쪽이라고 합니다. 판소리 기념실에서는 각 명창들의 소리를 짧게나마 들어볼 수 있는 감상코너도 있으니 한 번씩 들어보세요. 물론 제 목소리는 들으실 수 가 없습니다. 제 전성기 시절에는 지금처럼 녹음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제 판소리 한 자락을 들려드려야 그동안의 불신이 싹 사라질 텐데 말입니다.

6. 판소리 기념실_2

이왕 들어오셨으니 판소리기념실에서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가보죠.
판소리의 역사, 명창 등을 소개하는 사이에 판소리 다섯마당에 대한 조형물과 설명이 있었는데요. 판소리는 원래 열두 마당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섯마당' 또는 '다섯바탕'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판소리 다섯마당, 혹시 아시나요?
바로 춘향가, 심청가, 흥부가, 수궁가, 적벽가랍니다. 춘향가는 춘향전, 심청가는 심청전,
흥부가는 흥부전, 수궁가는 별주부전, 적벽가는 삼국지의 적벽대전 이야기를 소리로 풀어낸 것이지요.

판소리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여러 대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적벽가를 예로 들어보면 '삼고초려, 장판교 싸움, 군사설음 타령, 적벽강 싸움, 화용도 장면' 등 다섯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모든 대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자리에서 부르는 것을 '판소리 완창'이라고 하는데. 짧게는 두세 시간, 길게는 예닐곱 시간, 아니 그 이상도 걸리지요. 적벽가는 한 3시간 정도 걸리지만, 춘향가를 완창 하는데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8시간 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완창 할 때 고수는 몇 번 바뀌기도 하지만 소리꾼은 바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완창공연은 그리 많지도 않고, 또 소리꾼들도 힘들어 자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기 있는 대목들을 골라서 공연을 하는데요, 춘향가의 '사랑가와 쑥대머리', 흥부가의 '제비 후리러 가는 대목', 심청가의 '심청이 바다에 빠지는 대목', 적벽가의 '활 쏘는 대목' 등이 인기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완창공연 혹은 완창대회라고 해서 주요 국악인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완창에 도전하기도 한답니다. 근데 완창을 하고 나면 며칠은 정말 힘을 못 써요. 하지만 그렇게 힘든 만큼 완창이 주는 성취감은 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완창을 담은 음반을 내기도 하는데 춘향가 완창 음반이 CD로 대여섯 장이라고 하니 그걸 다 듣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겠네요.

7. 국악실

이제 우리가 가볼 곳은 2층에 있는 민속국악실입니다.
전시 내용은 1층 민속국악실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국악실 오른쪽에는 남원이 자랑하는 '강도근 명창'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선생이 쓰시던 북, 장구, 부채와 공연할 때 입었던 한복, 표창 받은 상장들, 구두와 가방 같은 소품 등이 보이시죠?

그리고 왼편에는 전통 무용의 대표적인 복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태평무, 진주 검무, 승무, 살풀이 등에 사용되는 무용복들인데 화려하면서도 각각의 무용의 특색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용복과 함께 우리나라 전통무용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안쪽에는 궁중음악과 정악에 대한 설명과 관련 영상도 있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사대부들이 즐기던 정악 등을 간단히 정리해 놓았는데, 자세한 설명을 이곳 문화관광해설사님의 목소리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가운데 처음으로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세계무형유산걸작'으로 2001년에 등재되었는데요. 그 두 번째가 바로 판소리입니다. 판소리는 2003년 11월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선정됐답니다.
판소리는 우리나라 고유의 음악이자 연극적인 표현 요소까지 결합된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창의 소리 한 대목에 청중이 울고 웃고 했다는 옛 기록들도 많이 있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유행하는 대중가요만 쫓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전통 음악을 직접 듣고, 접하고, 많이 사랑해 주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어가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니까요."

아!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님께서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것이 좋은 것이고,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요! 얼쑤~!

8. 국악 체험실

지금부터 가볼 곳이 아마 여러분이 가장 재밌어 할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야 좀 쭈뼛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마음을 확 열고나면 이보다 재밌을 수는 없을 겁니다. 바로 국악체험실이지요.
아까 잠깐 악기를 두드려보긴 했지만 여기선 그 정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악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공간이지요.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한데요, 많이 하는 것이 판소리 한 대목 배우기, 사물놀이 배우기, 미니 장구 만들기, 그리고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전시관을 관람하는 거지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서는 야외에 나가 판소리를 배우기도 하고 또 국악의 성지 안팎으로 이어진 소릿길을 따라 걸으면서 국악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그 많은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판소리 배우기와 장구 만들기입니다.

판소리는 판소리 다섯 마당 가운데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대목을 배운답니다.
단순히 따라 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판소리에 대한 설명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곁들이기 때문에 재밌으면서도 보다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지요.
또 장구 만들기는 실제로 사용하는 장구와 똑같은 재료로 약간 작게 만든답니다.
근데 크기는 작아도 소리는 제법 그럴듯하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면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학년생이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어른이 같이 도와주는 게 좋겠지요.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나면 국악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기서 배운 판소리를 잘 익혀 두었다가 노래를 불러야 할 자리에서 판소리 한 대목을 뽑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배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거 알고계시죠?

9. 국악공연장

판소리를 직접 배워보고 악기도 만들어 봤으니, 이제는 소리다운 소리가 듣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이곳에 가보시죠! 2층 중앙에 자리한 '국악공연장'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상설공연이 열리는데요 이 공연을 보려면 사전에 예약이 필요합니다. 단체로 보시려면 꼭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공연을 볼 수 있지요.
물론 공연자는 이곳에 상주하는 남원 시립 국악단이 맡아서 하는데요, 제 후배들이라서가 아니라 남원 시립국악단의 소리는 정말 좋거든요.
박수가 아주 절로 터져 나올 겁니다.
실제로 여기서 국악공연을 보고 난 관객들은 수준 높은 공연과 재미, 흥겨움에 대부분 감동을 받고 가시죠.

어떤 공연들이 펼쳐지냐고요?
악기 연주와 창악, 무용과 판소리, 거기에 민요 등...
아주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요, 또 대중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또 우리 가락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퓨전 국악 연주도 한답니다.
워낙 레퍼토리가 다양해 국악에 관심이 없던 분들도 보는 재미와 듣는 즐거움에 푹 빠지게 됩니다.
공연시간 1시간이 어떻게 지나는지를 모를 정도니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판소리는 서로 교감을 많이 하는 음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임새를 중간 중간 넣어주시면 공연자는 더 신나서 한답니다.
제가 소리를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는 관객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럼 그 날 공연은 진짜 백만냥짜리 공연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잘헌다~ 얼씨구~'를 신나게 외쳐 주시는가에 따라 공연의 질은 확실히 달라집니다.어색할 것 같다고요. 그럼 절 따라서 한번 해 보시죠. "얼쑤~!"

10. 송흥록생가

여기는 바로 제가 살던 곳, 송흥록 생가입니다. 국악의 성지 입구에 복원 돼 있지요.
일반적인 설명들이야 안에 들어가시면 잘 되어있으니 찬찬히 둘러보시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저의 생가에 들어서면 입구 왼편에 자리한 동그란 조형물이 있습니다. 돌로 만든 크고 작은 24개의 구인데요, 이게 뭐냐면, 저 송흥록이 완성한 진양조의 장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양조는 1장단이 24박으로 이루어진 아주 느린 장단인데요. 춘향가 중 옥중가 같은 슬프고 느린 소리에 잘 어울리는 장단이지요. 이 '옥중가'에는 옥에 갇혀 있던 춘향이에게 비가 내리고 바람이 으스스 부는 밤 온갖 귀신들이 나와서 춘향이에게 달려드는 '귀곡성'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대목이 저한테는 일종의 콤플렉스였습니다.
나름대로 팔도에서 이름을 꽤나 날리던 시절, 대구에서 춘향가를 불렀는데 제 노래를 들으신 분 중 한분께서 '송선생의 귀곡성은 많이 아쉽습니다. 귀신의 소리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충격을 받은 저는 그길로 유랑생활을 접고 남원으로 돌아와 귀곡성을 제대로 하려고 죽을힘을 다해 연습했죠. 그렇게 한창 연습중인 어느 비오는 밤, 웬 소년이 찾아옵니다.

소년 : 송명창님!
송흥록 : 이 밤중에 뉘시오?
소년 : 어떤 높은 어르신들이 송명창님을 모셔 오랍니다.
송흥록 : 왜 나를 찾느냐?
소년 : 송명창님의 소리를 듣고 싶으시답니다.

송흥록은 소년을 따라서 대나무 숲이 우거진 어느 기와집에 다다랐습니다.
집안에는 노인 세 분이 갓을 쓰고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앉아 계셨지요.

노인 : 송명창, 우리들이 심심해서 자네 노래를 듣고자 불렀네.
송흥록 : 어느 대목을 원하십니까?
노인 :「춘향가」중 '옥중가'를 해보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지신 어르신들 앞이라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긴 수염을 늘어뜨린 노인 한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 : 자네 노래는 다 좋은 데 귀곡성이 틀렸네. 내 가르쳐 줄 테니 잘 따라 해보게.

저는 노인들이 가르치는 대로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힘들게 노래 연습을 하고 났더니, 노인들이 그만하면 됐으니 한잔 하라고 술을 권하시더군요.
저는 술을 몇 잔 얻어 마시고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걸까요?
깜작 놀라 깨어보니 해는 중천에 떠있었고 저는 어느 무덤가에 누워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보니 무덤가에서 밤새 연습하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던 겁니다.
저는 꿈속에서 노인들에게 배웠던 노래를 기억하여 그 유명한 '귀곡성'을 완성시켰습니다만 다시 생각해봐도 등골이 오싹한 일이 아닐 수 없답니다.

11. 박초월 초가

사실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시면 저만 떠올리시지만, 저의 생가 안에는 미산 박초월 명창이 어린 시절 생활했던 초가집도 복원되어 있습니다.
김소희 명창, 박녹주 명창과 함께 1930~1970년대의 한국 여성 판소리계를 대표하는 여류 명창 중 한 분 이었던 박초월 명창은 열여섯 살 무렵에 이미 명창대회를 휩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김정문 명창, 송만갑 명창, 임방울 명창, 정광수 명창 등 훌륭한 스승들을 모셨던 그는 스무 살이 되기도 전에 서울과 전국은 물론이요 일본까지 건너가 공연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는데요, 1930년대 초반 <조선 성악 연구회>에 들어가서 이화중선과 같은 여류명창과 함께 대표적인 여류명창으로 이름을 떨쳤고요, '여성 창극단'의 일원으로 전국을 돌면서 뛰어난 노래와 연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웃기고 울렸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소녀시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고 할 수 있답니다. 그만큼 소리하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았던 시절이었지요. 물론 많은 소리꾼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명창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판소리는 혼자서 악보 위주로 연습하는 서양 음악과는 달리 스승과 제자의 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처음 소리를 배울 때 스승이 한 대목을 선창하면 제자가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제자가 온전히 그 대목을 습득해야만 다음 대목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배우는 제자의 열정만큼이나 가르치는 스승의 노력과 체력이 아주 많이 필요한 음악장르입니다.

역사의 향기와 국악의 흥겨움이 흘러넘치는 국악의 성지!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둘러보셨나요? 지난 시절을 돌아보고 우리의 소리를 사랑했던 분들도 다시 만날 수 있어 저 역시도 참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우리의 소리와 조금이나마 친해지셨다면 저, 송홍록은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국악을 발전시키고 좀 더 가까이 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 후배들이 노력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곳 남원에 오시게 되면 '국악의 성지'도 꼭 찾아주세요~! 언제나 좋은 소리, 훌륭한 소리로 여러분들을 맞아 드리겠습니다